

출장결과보고

1. 출장목적: 일본의 쌀 관세화 전환 과정의 관련 자료 수집하여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전환에 참고 자료로 활용

2. 출장자: 농식품정책연구본부 박동규

3. 출장지 및 기간: 일본 동경 일원, 6.10~6.13(3박 4일)

4. 방문처(면담자)

- 농림수산성 식량부 기획과 石塚正美・植村悌明, 國際部 上西美樹, (財)日本農業研究所 服部信司 외, 주식회사 神明 米田室

5. 주요 조사내용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 계산이 UR농업협정문 기준에 근거하였다고 하지만, 복잡한 숨겨진 과정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국내가격으로 도매가격 상품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UR농업협정 부속서5에 근거한 것임
 - 기준년도(1986~'88년) 당시 시장에서 유통되는 쌀 중 64% 정도가 상품이였으며, 그 외의 적절한 통계가 없었음.
- 국제가격으로 오키나와에서 저급 소주 생산을 위해 태국에서 수입한 쉐미가격을 사용하였는데, 1986~'88년 기간 동안 수입쌀 중 태국산이 가장 많았기 때문임(TE계산에 활용한 태국산 가격은 평균치임)
 - 면담자인 일본농업연구소 히토리교수는 태국산 쉐미를 제외한 수입은 거의 없었으므로 그 가격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매우 강조함
- 초기관세상당치는 402엔으로 계산되었으며, UR 기준에 의해 최소 15% 관세 감축을 고려하면 1999년 TE(종량세)는 kg당 351엔임

<일본 TE계산 결과>

단위: 엔/kg(정곡 기준)

	수입가격(cif) ¹⁾	도매가격 ²⁾	국내외가격차이
1986	29	438	409
1987	31	435	404
1988	37	429	392
3년평균	32	434	402

주: 1) 평균수입가격(대부분 오키나와에 수입된 태국 쌀가격, 태국쌀은 아와모리(awamori)라는 저급의 증류주 제조에 사용됨)

2) 소비량의 64%를 점유하는 상품(good rice) 가격임

자료: 服部信司, (재)일본농업연구소

- 일본이 WTO에 제출한 쌀 수입가격과 대장성의 무역통계 자료를 활용한 연도별 수입가격에 차이가 있지만 기준년도 평균가격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일본의 수입쌀 평균가격>

단위: 엔/kg

	수입가격(cif) ¹⁾	수입가격(cif) ²⁾
1986	29	33
1987	31	30
1988	37	34
3년평균	32	32

주: 1) 일본이 TE산정시 참고한 수입쌀 가격(정곡 기준)

2) 무역통계 자료의 수입쌀 평균가격(정곡과 쉐미 단순 평균)

<일본 쌀수입 실적(1986~88)>

품목	1986				1987				1988			
	국별	수량 (톤)	금액 (천엔)	단가 (엔/kg)	국별	수량 (톤)	금액 (천엔)	단가 (엔/kg)	국별	수량 (톤)	금액 (천엔)	단가 (엔/kg)
현미									인도네시아	-	414	
정곡	중국	233	13479	57.8	중국	222	11193	50.4	중국	242	13407	55.4
	태국	6026	245406	40.7	태국	5892	221996	37.7	태국	4150	161824	39.0
	파키스탄	1	262	262.0	미국	132	11366	86.1	파키스탄	4	564	141.0
	미국	36	1978	54.9					미국	44	4987	113.3
	소계	6296	261125	41.5		6246	244555	39.2		4440	180782	40.7
쉐미	태국	13955	390206	28.0	태국	10210	241726	23.7	태국	11046	348086	31.5
	스페인	162	9852	60.8	미국	409	14383	35.2	미국	272	10727	39.4
	미국	175	8566	48.9	호주	304	12412	40.8	호주	248	9509	38.3
	호주	63	3006	47.7								
	소계	14355	411630	28.7		10923	268521	24.6		11566	368322	31.6
	계	20651	672755	32.6	계	17169	513076	29.9		16006	549104	34.3

자료: 일본 「貿易統計」, 大藏省, 각년도

- 일본의 무역통계(대장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준년도에 태국산 쇠미 이외에 적지 않은 물량을 여러 나라에서 수입한 것을 알 수 있음
 - 물론 수입량은 소비량의 0.18% 정도로 미미한 수준임.
- 무역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UR협정문에 기초한 평균 수입쌀가격은 일본이 발표한 연도별 수입쌀가격과 일치하지 않지만 3년 평균가격은 동일함
 - 일본이 TE 산정 시 참고한 수입가격은 오키나와에서 수입한 태국산 가격만 평균한 것이 아닌가 추정됨
- 초기관세상당치에 대한 이해 당사국의 이의 제기는 많지 않았음
 - 미국은 이의 제기가 없었으며, 호주가 이의 제기하였으나 UR기준에 의한 고율관세라는 점을 이해하고 철회하였음
- 중국의 정곡 수출가격은 높게 나타나지만 저개발국 등에 저가의 수출 실적과 저렴한 쇠미 수출 실적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제 쌀가격이 낮아지거나 저가 쌀수입에 대응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도록 종량세를 선택하였음
- 쌀 가공품에 대한 관세상당치 계산에 적용한 계수는 1.1인데, 이는 쌀가루 제조 시 중량 감소율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임. 기초 통계는 없으며 경험에 의한 것임.

<관세화 추진에 대응한 정책 프로그램>

- 관세화 추진 이전인 1997년에 쌀가격 하락 시 시장가격과의 차이의 80%를 보전해주는 정책이 마련되었음
 - 따라서 쌀 관세화 전환과 관련한 별도의 대책은 없었음

※우리나라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2002년에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한 바 있음.

<쌀 도정업체의 규모화 및 시설 현대화>

- 神明 등 민간도정업체 시장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식관법 폐지 등 유통환경 변화에 기인하며, 대규모 공장인데다 가동율이 매우 높음
 - 식관법에서는 소매업자만 도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식관법 폐지로 민간 도장공정이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이후에도 농협 중심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다양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짐

- 주식회사 신명은 24시간 3교대로 가공(일주일에 한 번 반나절은 기계점검을 위해 작업 중지), 월 5~6천 톤 가공함
 - 원료곡(현미)의 90% 정도는 첸노(농협경제련, 전국 40개 현을 망라함)를 통해 매입하고 나머지는 SBS물량과 공공비축미 등을 매입
 - 판매량의 30% 정도는 품종이 혼합된 쌀로 주로 식당용 등으로 출하함
 - 유명 품종의 쌀을 구입하고자 하지만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 계층을 목표로 함

- 유통규제 완화로 대규모 민간 도정공장이 등장하여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판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유통방식이 나타나고 있음.
 - 일본의 쌀유통은 다양한 주체에 의한 여러 가지 유통방식이 출현하고 있으므로, 농협 중심으로 수탁판매되고 있다는 평가는 맞지 않음